

대중음악의 표준적 용어 정의에 대한 제언

조승현

고려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

e-mail:meducho95@naver.com

Suggestions on the Definition of Standard Terms in Popular Music

Seung-Hyun Cho

Dept. of Cultural Contents,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

요 약

현재 K-POP은 전 세계적인 K-Culture의 인기 상승의 중심점에 있다. 한국의 영화, 드라마, 음악, 게임 등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는 동아시아 전역에서의 인기를 넘어 특히 유럽을 포함하여 세계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인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. 그 만큼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졌음을 시사하고 있다.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대중음악 분야의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, K-POP에 대한 전문 연구자도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 대중예술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고 이를 위한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에도 큰 어려움이 있다. 필자는 이와 같은 K-POP의 학문적인 연구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대중음악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표준적 용어에 대한 학문적 정의(Definition)를 내리고자 한다.

‘아이돌’, ‘대중음악’, ‘실용음악’ ‘음악사의 시대적 구분’, ‘K-POP’ 등 한국의 대중음악을 표현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학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, 다소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다. 그러한 이유로 학자들 간의 논문 및 저서마다 용어가 다른 의미 및 범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자 외의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매번 다른 정의로 혼란을 겪고 있다. 예를 들어 K-POP에서 말하고자 하는 ‘아이돌(Idol)’의 경우에는 우상(偶像)이라는 뜻으로 보통 ‘한국의 청년 층에게 인기가 있는 가수’로 정의되고는 한다. 하지만 일반적으로 솔로가수나 싱어송라이터(Singer-song Writer)처럼 아티스트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하는 가수들에게 아이돌이라고 칭하는 경우, 해당 용어에 대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여론도 있다. 아이돌이라는 표현 자체의 언급이 많지 않음을 볼 수 있다. 그렇다면, K-POP 아이돌은 어떤 가수를 뜻하는 말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만 하며, 이것이 현재 대중음악의 표준적 용어 정의의 필요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.

결국 용어를 정의해 나가는 과정은 국내의 대중음악 관련 연구에 도움을 주고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. 이에 필자는 대중음악의 용어를 합리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연구자들이 글을 쓰거나 정보 이용자들이 대중음악 관련 정보를 이용할 때 있어 도움을 주고자 한다.